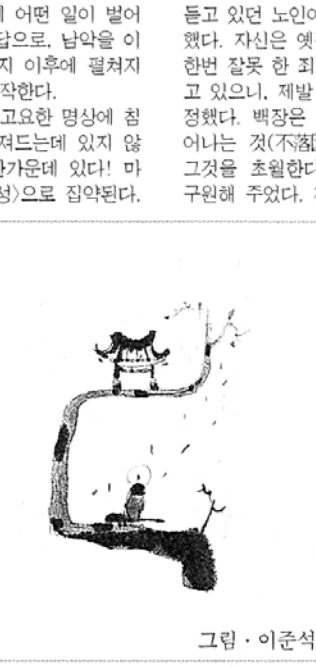


**한 형조**  
**무문관 탐방**  
53  
**마조의 딱지돈 ④**



육조 혜능은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당하여 파지(把持)하라" (32~38장)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교(教)에 대한 선(禪)이 있게 되었다. 그것은 밖으로 치닫는 빛을 꺾어 자신의 내부를 비추는(廻光返照) 혁신적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그러나 방법이지 구경(究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같은 방법적 전회를 통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남악을 이은 마조는 본질(自性)의 파지 이후에 펼쳐지는 실존의 운동을 말하기 시작한다.

본래면목의 실제(實際)는 고요한 명상에 침잠하거나 신기한 기벽에 빠져드는데 있지 않다. 그것은 삶의 공간 그 한가운데 있다! 마조의 선풍은 바로 그 (일상성)으로 집약된다. 그 점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자. 우선 25장에서 살핀 남진보원(南泉普願)을 기억할 것이다. 그는 마조 문하의 세 기린아가운데 하나이다. 남진은 제자 조주(趙州)가 선의 비밀을 묻자 서슴없이 평상심(平常心)이라고 일러준다. 조주 역시 이 종풍을 이어 학인들에게 "차나 한잔 하지(喫茶去)" 혹은 "밥을 먹었으면 그릇을 씻어라(洗鉢)"라고 권하곤 했다.

일상의 종시는 재가(在家)의 제자인 방거사(龐居士?~808)에게서 전형적

**“본래 면목은 삶의 가운데 있다”**  
**“一日不作 一日不食” 나태해지기 쉬운 명상 경계**

으로 확인된다. 그는 선종사상 기이한 인물이다. 본래 선비였는데 세상에 환멸을 느끼고 석두를 찾아 영원의 가르침을 구했다. "만법(萬法)과 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석두는 "씻"하고 손가락을 입에 댔다. 절대의 얼굴은 언설로 다가갈 수 없다는 뜻이었었다. 그 말에 거사의 마음 한구석이 열렸다. (그후 석두는 그를 마조에 보냈다. 방거사의 예의 그 질문에 마조는 "네가 저 강물을 한 술에 들이킨다면 말해주마"라고 대답했다. 이에 그의 마음이 환히 밝아졌다.) 하루는 석두가 물었다. "요즘 자네가 어떤가." "달리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니까, 어디 말해보게." 이에 방거사는 이렇게 읊었다.

내 일상은 그저 그런 일련  
상황에 몸을 맡긴다네  
선택도 거부도 않고  
법석도 부딪침도 없이,  
무슨 다른 영화가 있으리  
먼지 굵기 이 산과 언덕밖에  
내 영혼의 수련과 신비한 마술력(神通妙用)  
그것은 물을 길고 쉼을 저 나르는 것(運水及搬柴)

'길고 쉼을 저 나르는' 그 일상 속에 도(道)

가장 혁신적인 것은 탁발이나 걸식에 의존하지 않고 수행자들을 직접 경작과 노동에 투입한 일이다. 몸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은 명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선의 목표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 一日不食)"는 이후 선의 지침이 되었다. 백장은 아흔 너머의 노주에도 일터로 나섰다. 제자들이 그만 하시라고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자, 고심 끝에 연장을 감추어 버렸다. 웬걸, 백장은 자신의 규율에 따라 곡기를 끊었고, 놀란 제자들이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이 규율이 없었다면 선은 곧 이은 그 혹독한 불교탄압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9세기초에 당(唐)의 무종(武宗)은 불교의 과다한 소유와 방만한 재정을 철폐하겠다는 의도에서 절을 부수고 승려들을 환속시켰다. 그 대규모의 박해가 30년간 계속되면서 불교는 거의 초토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선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고 살아남았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선이 불상이나 경전과 같은 외적 대상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고, 생활의 필요 또한 자신들의 수고와 울려에 의해 자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계 지킴은 내면의 '알아차림'**

아잔타 스님은 '미덕'을 가르치기 위해 '열반' '깨달음' '아비달마(論藏)' 등과 같은 어려운 교리를 거론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말했다.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할 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좌우를 살펴본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부처님과 법과 스스로 지은 업(業)이 항상 지켜보고 있지 않는가. 부처님께서 그만 거리에 있는 일도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우

**정업 ③**

리는 진정 무엇으로부터도 도망갈 수 없다."

스님은 계지킴의 미덕은 겉으로 무엇을 행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는 내면의 알아차림과 자제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미덕은 마음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법어를 죽여 불살생계를 범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아마 그 마음에는 "나는 벌레가 징그러워"와 같은 혐오감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불살생은 차별심(差別心)에서 벗어나 유정 무정물이 하나의 망에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지켜진다. 마음의 행동거지는 냉철함에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3

의해서가 아니라 각각각색의 혐오감과 공포심에 끌려다니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고 행동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갖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지 유정물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살생계를 지킨 것은 아니다.

**"땅속의 벌레 미생물까지 인간의 삶과 밀접" 나와 유정·무정관계 인정**

이 제목은 '기르기(cultivate)'를 통해서도 지킬 수 있으며 보다 실제적인 방법이다. '기르기'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는 말처럼 '나'와 유정 무정물 간의 밀접한 상호관계를 인정하고, 경의감을 품는 것에서 출발한다. 남극대륙 근해에 서식하고 있는 크릴 새우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유정물 중의 하나이다. 수많은 수생물은 이 새우를 먹으며 살아



간다. 우리는 수생물들을 섭취하며 살아간다. 벌도 유용한 유정물이다. 벌은 식물의 수정과 번식을 돕는다. 만약 벌이 없다면 식물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곡식과 과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렁이가 산소를 공급해주는 일을 한다.

3년전 미국에서 '마음의 병'이라는 주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 회의에는 종교인, 정신병리학자, 심리학자 40여 명이 참여해, 2박3일간 진행됐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학자들이 담소를 나누며 야외식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이로퀴에(인디언의 한 종족) 정신병리학자가 식사 전 감사기도를 제안했다. 학자들이 모여있는 드락에서 손을 손을 잡고 기도를 올리자는 것이었다. 인디언 학자는 "깨끗한 공기와 비를 주신 바람과 구름

에 감사드립니다"라며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의 발 밑(땅 속) 세계를 느껴보십시오. 땅 속의 수많은 벌레와 미생물이 얼마나 인간의 삶과 밀접한지"라고 글을 맺었다.

나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부처님의 '마음정감(定念)과 흡사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이지 않는 것과 흠치지 않는 것. 이것은 내면의 경의감에서 가능해진다. 깨달음이 독설적인 장님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외경을 차단할 썸으로 매 순간 만트라를 외운다면 되려 차(車)에 치일지도 모른다. 오로지 마음을 챙기라. 정신을 팔지 말라.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누군가 말하거든 혼자 말하라. "무엇이 아름다운가"라고 어떤 것이 맛있다고 하거든 "아니, 아무 맛도 없는데" 하라. 생각의 집착이나 상대적인 저울질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의 방편은 그저 모두 것이 지나갈 수 있게 마음을 놓아줄 뿐이다.

어떤 사람들이 남에게 관대하게 대하기를 두려워한다. 그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게 되는게 아닐까? 불이익을 당하는게 아닐까? 라는 불안감에서. 우리가 관용과 경의의 미덕을 키울 때, 우리는 욕망과 집착을 여누를 수 있다. 이러한 덕목이 우리의 참 본성을 드러내도록 한다.

**불교와 수학**  
57  
**창발**

**김용운**

최근의 카오스 이론에 자주 등장하는 말에 창발(創發·emergent)이라는 것이 있다.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창발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학술적인 술어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선 몇 개의 보기로서 접근해 가기로 한다.

가령 H<sub>2</sub>O라는 분자가 수소여개가 모아지면 물의 액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창발적이다. 또한 수증기나, 광선 바람 등이 상호 작용을 하면 창발적으로 폭풍우가 나타난다. 창발적 현상의 특성은 현상이 '1+1=2'라는 단순한 산수적 결과가 아닌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데 있다. 개미를 한마리씩 집어서 일정한 자리에 옮겨보면 처음에는 시들시들하면서 의미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개미의 수가 일정한 수에 도달하면 개미 특유의 사회적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개미사회가 창발된 것이다.

사회적 대상이나 자연적 현상에는 마치 고층 건물과도 같이 여러개의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62

양상이 몇몇으로 겹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전개된다. 위의 보기를 든다면 개미집단이 있고, 그것을 먹고 사는 새가 나타나고, .....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형성된다. 바꾸어 말한다면 여러개의 수많은 요소들이 합해될 때 연기의 엄밀 속에서 단순한 총합 이상의 세계가 구축됨을 뜻한다. 이것을 '계층적세계'라고나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의 창발은 그보다 높은 차원을 유발해

연꽃에 연꽃잎, 또 일 하나에 일백 가지 좋은 빛이 있고, 그 빛 속에는 팔만사천의 백이 흐른다. 연꽃 → 꽃잎 → 꽃잎의 빛 → 그 속의 백 ... 이 세계에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계층이 여러개의 양상으로 겹겹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계층의 차원이 높아질 때마다 새로운 창발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카오스이론 창시자의 한 사람인 프리고진(I. Prigogine)은 개미집단의

은 개미의 적당한 비율이 유지되는 것이다.

특히 인간을 보기로 든다면 백수 십억개의 신경세포의 조직망에서 '마음'이 창발적으로 형성된다. 중생이 모이면 그 낱알이 개인에게 있어서의 신경세포처럼 사회의 마음을 창발한다. 개인의 건전한 신경세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결정하고 또한 개인과 중생의 업으로 사회의 마음이 창발한다. 이 신비로움이 인류의 미래와 과거에 끊임없이 이어져 있다.

**수소·산소분자 작용 물 발생하듯 전혀 차원다른 계층적 세계 구축 중생들이 불심내면 온누리 자비 가득**

가는 것이다. 특히 불교의 여러 경전은 이 계층적 세계관을 많이 등장시킨다. 가령 <관무량수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연꽃 마음을 내/그 연꽃 잎일모로 /일백 가지 좋은 빛을 내어 보아라/ 팔만사천이라 脈이/하늘의 그림같이 거기 있으니/백에 있는 팔만사천의 빛이/

모두 다 눈을 떠 두루 보게 하여라 / 아무리 작은 꽃잎사귀도 / 가로 세로 펼쳐져 일만리는 가느 나.....

관찰을 통해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의 개미집단에는 경군 이상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개미와 게으른 개미가 있다. 이들 부지런한 개미와 게으른 개미를 (A), (B) 두 집단으로 분류해 보았다. 부지런한 개미의 집단 (A)는 더욱 부지런해지고, 게으른 개미의 집단 (B)는 더욱 게으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아니었다. (A), (B)의 개미집단은 각기 부지런한 개미와 게으른 개미의 비율이 처음의 개미집단과 똑같이 나타났다. 각 집단마다의 생명의 자가 창발되고 부지런한 개미와 게

아무리 작은 것과 큰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각 계층의 요소 모두가 연기의 고리로 묶어 전체적인 생명의지를 발휘한다. 인간은 고립적 존재가 아니고 나의 존재와 현존하는 전인류와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 모두와 미래에 존재할 인류와 생명의지를 공유하는 것이다.

'보살이 보리의 마음을 발할 때 온누리에 자비가 가득해진다'는 상황은 낱알의 중생이 불심을 갖게될 때를 의미한다. 보살의 마음은 모든 중생의 마음이 발현하는 불심으로 창발된 생명의 의지이다. 깨우침은 곧 선을 향한 의지이자 자비이다. 곳곳에 있는 낱알의 중생은 스스로가 발한 선의지로 자신을 비추는 불심을 받아 들인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앙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初寺)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沙漏),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 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3,5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동선요리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